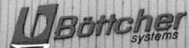


獨 인쇄용롤러 제조사 웨처, 한국 상륙



세계 인쇄기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독일. 흔히 독일에서는 인쇄기 제조사 '빅3' 라고 하면 하이텔 베르그, 만로랜드, 캐마우가 꼽힌다. 그러나 세계무대에서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이들 3사가 모두 웨처(Böttcher)가 만든 롤러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지난 2월 웨처는 100% 본사투자법인으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웨처코리아(사장 박찬준)를 설립 국내 영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도 세계 유수의 인쇄기 제조사들로부터 인정받은 인쇄용 고무 롤러의 명성과 우수성을 알리겠다는 각오다.

275년 전통, 롤러 제조의 살아있는 역사

라인강변의 독일 쾰른에 본사가 위치한 웨처 그룹은 인쇄용 롤러 분야에서만 8대에 걸쳐 무려 275년의 기업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분야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40여곳의 현지법인과 지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시설만 해도 영국, 프랑스, 체코, 미국, 이탈리아, 태국, 중국 등 16개에 이른다. 1600여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이 곳은 인쇄기용 고무롤러, 인쇄용 케미칼(세척제, 약물, 인쇄용 롤러 유지보수제 등), 인쇄용 블랭킷, 산업용 롤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대기시간 없는 신품 롤러 교환으로 영업 차별화

지금까지는 낡은 고무롤러를 교환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롤러를 공장에 보내고 재생과정을 기다린 뒤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였다. 그러나 웨처코리아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신품 웨처 롤러(액세서리나 베어링이 장착된 것)를 먼저 보내 새 롤러로 교환해 주는 '롤러 교환 프로그램(Exchange roller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이후 사용자가 현 롤러를 반납하면 이 가운데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롤러 철심-코어와 재사용 가능한 약세서리)의 금액 80%까지 환불해 준다. 때문에 고객들은 항상 새 기계에 장착되어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품질의 롤러를 합리적인 가격에 사용할 수 있다. 신규기계 납품시 정품롤러만을 공급한다는 웨처코리아의 원칙도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비결중 하나다.

15억 매출이 1차 목표, 일반산업용 시장도 노려

일산시 장항동에 위치한 웨처코리아 본사는 총 140평 규모로 현재 약 1500개의 인쇄용 롤러 뿐만 아니라 인쇄용 케미칼과 블랭킷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법인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박찬준 사장은 1994년 인쇄업계에 입문해 하이텔베르그와 만로랜드에서 다년간의 실무와 영업경력을 쌓은 베테랑으로 알려진 인물. 박 사장은 "2006년에 매출 15억원을 달성하는 것이 1차 목표"라며 "3~5년 이내에 인쇄용 롤러 분야가 안정이 되면 일반산업용 롤러 시장까지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



웨처코리아의 직원들. 왼쪽에서 두번째가 박찬준 사장